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지하 1층 국제회의실에서 특검 수사결과에 따른 삼성그룹 경영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발표된 삼성그룹 쇄신안의 핵심 내용은 그룹 총수인 이진희 회장의 퇴진이다.

이 회장은 직접 이날 오전 11시 태평로 삼성 본관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회장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삼성그룹은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일선에서 물러나며,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도 CCO(최고고객책임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삼성그룹 쇄신안은 지주회사 전환 등을 제외하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된 그룹 개혁안의 대부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파격적인 것이다.

■ 삼성 쇄신안 무엇을 담았나

그룹 전략기획실 해체
차명 재산 공익 기여
홍라희 관장도 사임

◇ 이진희 회장,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CCO 사임 = 이 회장은 특검 정국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회장과 등기이사, 문화재단 이사장 등 삼성과 관련한 일체의 직에서 사임한다.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 미술관 관장도 관장직과 문화재단 이사직을 사임한다. 또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도 CCO직에서 사임한다.

이 전무의 거취는 5월 예정된 삼성전자 인사 발표 때 보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게 된다고 그룹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이수빈 부회장이 이 회장을 대신해 대외적으로 그룹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그룹 전략기획실 해체 = 그동안 그룹의 컨트

롤 타워 역할을 해 온 그룹 전략기획실은 전격 해체된다.

해체되는 전략기획실 대신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각 계열사의 투자 계획 등을 조율하게 되며 사장단 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대외적으로 삼성그룹의 창구 역할을 맡는 업무지원실이 사장단협의회의 산하에 설치된다.

◇ 차명계좌 실명 전환 후 '유익한 일'에 쓰겠다 = 특검 수사 결과 조세 포탈한 것으로 드러난 차명계좌는 이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사회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삼성그룹은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의 신탁한 것으로 이번이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은 돈을 사회 사업에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특검에 의해 조세포탈 문제가 제기된 차명계좌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을 사회 사업 등에 쓴다는 것이며, 삼성생명 주식 등은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기에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지주회사로 전환, 순환출자 해소는 "시간을 달리" =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을 4~5년 내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룹은 "그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 일각의 조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진희 시대’ 20년만에 막내려

삼성전자를 '한국의 삼성'에서 '세계의 삼성'로 성장시킨 이진희 회장이 '특검 압초'를 만나 취임 20여년만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회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20년전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인정받는 날, 모든 영광과 결실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먼 현 시점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 회장은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리더로서 확고하

게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일 취임 20주년을 맞았으나, 직전에 터진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폭로로 20주년 취임 기념 행사도 갖지 못했던 이 회장은 결국 '특검 압초'를 넘지 못하고 국내 최대 그룹 삼성의 지휘권을 거머쥔 지 20년만에 경영일선에서 퇴진하게 됐다. /연합뉴스

삼성家 황태자 이재용 '경영 수업' 계속

삼성전자 고객총괄책임자(CCO) 자리에서 물러나 '백의중군'하기로 한 이재용(사진) 전무는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서 장차 삼성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주목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 회장에서부터 지분을 모두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회장에서부터 '대권'을 이어받을 외아들이 뿐 아니라 이미 그룹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고리에 해당하는 삼성에



다. 이 전무는 오래 전부터 이 회장의 후계자로 점쳐져 왔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그룹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재벌 2, 3세들이 빠르면 20대 후반, 보통 30대 중반부터는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전무는 경영수업 기간이 길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이번에 삼성전자 공식직

책에서 물러나 '백의중군'키로 함으로써 경영권 승계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연합뉴스

이수빈 삼성 대표얼굴로 부각

(삼성생명 회장)

이학수·김인주·황태선 등 '삼성맨' 줄줄이 사퇴

22일 삼성그룹 쇄신안 발표와 함께 물러난 삼성맨은 그룹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삼성화재 황태선 사장, 삼성증권 배호원 사장 등이다.

반면 삼성그룹 이진희 회장과 가신들이 줄줄이 퇴진함에 따라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대외적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얼굴이 됐다.

이학수 부회장은 1997년 이진희 회장의 비서실장에 오른 이후 10년 이

상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맡아 해오며 '이 회장의 오른팔', '그룹의 2인자' 등으로 불렸다.

김인주 사장은 삼성그룹의 대표적 인재로, 이 부회장과 함께 그룹 내 최고 실권자로 통한다. 삼성화재 황태선 사장과 삼성증권 배호원 사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돼 퇴진하게 됐다.

삼성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된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은 재직 중인 임원 중 최고참으로 '의전 서열 1위'다.



그러나 이 회장의 역할은 대외적으로 그룹을 대표하는 역할로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 측은 "이수빈 회장은 대외 행사 등에 그룹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그룹 경영은 어디까지나 각 계열사 전문경영인의 자율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Naeyoung Education) featuring a large 'Naeyoung Education' logo,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courses including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Nursery Education', 'English', 'College Prep', and 'College Entrance'. It also includes a phone number 529-0090 and a website URL.

Advertisement for Global Architects & Engineers Co., Ltd. (Global Architects & Engineers Co., Ltd.) for recruitment of new employees and experienced staff. It lists job categories like 'Design' and 'Supervision', and provides details on application procedures, including a deadline of April 30, 2008,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

Advertisement for Grand Food System (Grand Food System) featuring a variety of food dishes. The ad promotes their 'Grand Buffet' and 'Grand Party' services, highlighting their commitment to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ir location in Gwangju and a phone number for reservations.